

EUNSEOK CHURCH MATHETES

이런 나의 나 됨에

신용식

지금의 모든 것
무너지고 사라져도
사랑이 차올라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존재이기를

지금의 모든 것
잡혀지고 잃어도
원망과 분노가 아닌
사랑을 알지 못함에
더 깊이 아파하기를

이런 나의 나 됨에
소망을 새기고
하늘 향하여
귀가 열리면
사랑이 그 속에
뿌리내리리.

제24권

49

2016.12.4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달힌 문

겔 44:1-3

성경은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증거가 삼자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등장한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이 성경의 세계, 즉 예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했음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육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와질 수 없는 세계가 곧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인 세상은 성경이 증거 하는 영의 세계를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이해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 이야기가 이해된다면 그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로 변질시켰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삽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역시 자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신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인간성에 충돌되지 않고 오히려 이해된다

면 그것은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을 위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거룩하지만 육의 세계는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의 세계 앞에 선다면 팔히 육신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는 자가 영의 세계인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자발적 의지와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인 성경을 이해하고 납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9)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당연히 육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취향을 따라 사람을 인정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관심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관심이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일에 온 마음

이 향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행함보다는 그리스도의 행함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함 앞에서 자신의 행함은 의미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함 하심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함은 이야기의 내용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만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성령이 개입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이야기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해 보고 듣는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완성의 상태인 성전 안에서 에스겔이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전에 초청받아 부름 받은 입장일 뿐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선지자다운 특별한 인격이 요구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도덕적 삶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아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에스겔의 성전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성전을 포함하여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받

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성경이 증거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고 말합니다.

겔 43:4-5절을 보면 여호와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간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서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전 안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간 것입니다.

바깥문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돌지니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온 문이기에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들어오신 거룩한 문이 더럽혀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성전이 된 신자의 직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에 때문에 신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 있으며 따라서 그 문으로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즉각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세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룩한 문이 있기에 그 문으로 세상의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성전인 신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자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한 설명이고 해석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화와 연결하여 이해하면 더욱 더 신자가 마음에 두어야 하고 지켜야 할 내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성전으로 불리는 신자가 스스로를 성전다운 모습으로 지키기 위해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고 행해야 할 것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신자다워지고 신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불의함에 대해 눈을 뜨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의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자의 의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려고 힘썼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해석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납득 된다 해도 바른 해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한다는 것이 수상할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어오신 문이기에 달고 다시 열

지 못하며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되는 것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분의 차이는 물론이고 행위의 여부에 따라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온갖 정성을 다 보이며 애원하거나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감동하셔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활동해 주실 것으로 기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을 달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조치는 신에 대한 인간의 예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인간의 어떤 행함과 실천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에서 항상 벗어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상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비난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칭찬 받을 일을 하면 그 칭찬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의 예상이지만 그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 문을 달으라는 하나님의 조치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와의 영광이 등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감으로 성전은 여호와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겔 43:4,5). 그리고 문이 닫혀서 아무도 그 문을 열고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들어

갈 수 없게 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이미 여호와로 인해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영광이 사람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문을 닫고 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전에 또 다른 문을 만들어 세우려고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열려있고 인간 또한 열마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 문이기 때문에 비록 본인은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착각이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일 뿐입니다.

문이 닫혀서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린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지금의 교회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들어가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정성과 봉사 등의 헌신을 더하면 추가로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려는 인간의 생각에 맞는 천국 아닌 천국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닫힌 것으로 모든 문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하나님이 들어가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인 까

닭에 문으로 들어가 여호와의 만나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닫힌 문은 오직 왕에게만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로 선택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행함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가능한 보편적인 행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뭔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행함과 연결시켜서 좀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간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욕구와 포부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가능성이 버무려진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끝은 삼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3:7-8절을 보면 **“일라델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불지여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분에 의해서만 열리고 닫히는 문이 있고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면 우리는 천국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로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은 자연히 다윗의 열식을 가지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다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자 하는 습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좀 더 인격적이어야 하고 선한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기관심의 증거들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 받은 것으로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령 받음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아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인 자신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구원 받은 자가 되

었음을 압니다. 말씀 또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으로 살아 계신 말씀이 나를 예수님의 은혜의 은혜 됨을 증거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자에게 현실은 밥 먹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일하심에 붙들려 있는 것 자체를 뜻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행함으로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를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행함을 더해서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믿음은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과 치유

출 15:22-26

믿음 90강 11. 13일 설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현실에 대한 개념이 언약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시각으로 세상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동일하게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언약을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

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돕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현실들은 우리 육신의 편안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증거 하기 위한 도구와 기회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 자는 현실에 대한 개념이 언약적 시각으로 바뀌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더 큰 관심이 자신의 생존 문제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 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에 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시각으로 자기 현실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면서도 일상 현실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함께 하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에 의해 주어지는 새로운 현실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다는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의 현실로 자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현실로 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새로운 현실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기존 현실관을 그대로 가진 채 새로운 현실관이 요구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 또한 애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박혀 있는 애굽에서의 현실관, 즉 육신이 중심이 된 기존의 현실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버려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규례를 지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신이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자, 그래서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치료하는 여호와 앞에 나간다면 그는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 나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자신을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즉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치료하는 여호와’ 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자의 상태를 자신의 현실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는 말은 육신의 질병, 육신의 치료와는 무관한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사도가 신적 능력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 치료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질병이 고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참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당연히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의 가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바울은 몸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 나음을 위해서나 하다못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아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러한 기도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것처럼 자기 욕망에 불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해 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기 정당성을 삼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신자 된 증거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병이 낫고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존귀하고 복된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히 육신이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는 현재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할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병든 자라는 자기 인식이 없다면 치료하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걸었음에도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있는 웅덩이를 만나긴 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을 겪게 된 이스라엘은 결국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라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은 물이 달게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2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물이 달게 되어 마셨으면 이스라엘도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고 하시면서 2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26절에서 말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열 재앙 때 있었던 질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애굽에 있었던 질병을 내리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도 애굽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애굽에서의 현실판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아침까지 두었다가 별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백성 중 어떤 사람은 혹시 안식일에도 만나가 있을까 하여 거두러 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고 애굽의 질병이 내

려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약속의 땅이라는 현실을 해석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죄인 됨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죽음병에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시한부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책임지는 길로 갑니다. 구원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

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도덕적인 선한 삶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성령이 오셨다면 그 증거는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고 자기가 죽인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출 1:15-22

3강 2016. 11. 30일 설교

이스라엘의 확대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이란 인물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도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350년이 넘는 예전의 사건이라 해도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몇 백 년이 지나도록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나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으로 인해 지금의 애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보면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1)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곧 인간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과 열심에 의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이해하기 때문에 은혜도 사랑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괴롭히고 학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번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또 다른 조치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울 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남자 아이를 죽이면 장차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여자만 남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17절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지라”** 고 말하고 21절에서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성경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자가 됩시다.’ 라는 교훈적 이야기로 전개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그러한 교훈적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

다. 그리고 교훈은 교훈으로 끝난다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존에 들었던 교훈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역시 교훈을 들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의 명령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산파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두려운 현실은 애굽 왕의 명령일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의 삶에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세상에는 누구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고 말합니다.

산파들은 자신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리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복을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에만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에 죽든 살든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게 붙들려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산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참된 현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계산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은 아닌가? '십일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자에 손해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계산과 함께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는 것들이 믿음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면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면 후회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가 누구신가만 생각했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에 의한 행동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었을

것이기에 당연히 억울함도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상으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현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현실로 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시작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하나님이 없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된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세상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살아 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계산이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만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힘에 머리 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소식

1. 2016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언제나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루하루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3.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장로피택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4. 캄보디아로 보낼 여름옷을 수집합니다. 입지 않은 여름옷(어른, 아이 상관없음)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조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	7:30
주일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독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67장
 교 독 문 41(시97편)
 기 도 김중건 집사
 찬 송 419장
 성경봉독 겔 44:1-3

● 달린 문(105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51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3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송홍인 집사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83장
 기 도 박상윤 집사
 찬 송 415장
 성경봉독 빌 3:17-19

● 믿음의 본(믿음93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51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옥주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출애굽기 강해 4강